

Winter. Vol.15



since 2002
소통과 도약의 **EM** 실천
Empowerment Society

희망 실천



Contents Winter. Vol.15



- 03 여는글
- 08 신규직원
- 10 나들이
- 12 나들이를 다녀와서 / 가족글
- 13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0주년 기념식
- 16 2012년 사업평가 워크샵
- 18 그녀들의 하루 / DM사업팀
- 20 가족 & 근로장애인 & 종사자 만족도조사
- 22 2012년 EM실천의 월별 행사포토 앨범
- 24 2012년 거래처 감사편지
- 26 NEWS
- 27 우편발송광고
- 28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발행일 2012. 12. 26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화 02)875-9744,9733 팩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

“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여는글

“EM실천의 사회적 경영 전문컨설팅”

| 케이엠컨설턴트 차인성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정상화를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된 EM실천은 설립 초창기에 복사기 2대와 단순 임가공으로 시작 하였으며, 2004년에 6천8백만원의 매출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매출액 16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시현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데에는 현재 수익사업의 아이템이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이었고, 직원들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항상 프로의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부임한 현 원장의 “직원들 눈높이에 맞춰 직원들을 상대하고, 직장 분위기를 편하게 하려는 리더십”에서 비롯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8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한번 의뢰로 인쇄, 현수막, 복사, DM발송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 하여금 EM실천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쇄사업의 핵심 역량인 디자인부문은 기존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 고객이 요구하는 적정 품질의 제품을 스피드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기준수는 물론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객들이 제품의 품질과 회사의 역량을 인정해 주고 있어, 기존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고 있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동사는 부서별로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를 함께 배치하여 장애인의 인권, 직업 훈련의 방법,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복지 및 직업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매일 회의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EM실천은 단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주 사업부문인 경인쇄를 넘어 대부분 외부에 의뢰중인 디지털 인쇄부문까지 확대해 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이며, 향후 인쇄부문의 전문업체로의 발돋움을 위해, 현재의 조직문화 등 내부역량 개선과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의 공공우선구매제도를 좋은 기회로 활용 한다면, EM실천은 지속 가능 성장은 물론, EM실천의 사명을 달성하여 향후 직업재활 시설과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내 머릿속의 EM실천”

| EM실천 우편발송사업부 김 지 연



2011년 무더운 여름 어느 날,
EM실천에서 나의 생활들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소극적이었던 나와는 달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등등 관심과
웃음으로 반겨주었던 나의 동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난다.

이름, 나이, 사는 곳, 취미 등을 쉴 새 없이 물어보는 나의
동료들이 처음엔 귀찮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고
맙고 감사했다.

웃음 많고, 호트러짐이 없었던 그녀, 황찬희팀장님
나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었고, 아픈 나에게 간병을 해주었다.
말이 없고 조용한 나와는 달리 말이 많고, 적극적이었다. 정말 최고의 팀장님인 것 같다.

어느날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 달부터 김지연씨가 1팀의 팀장님입니다.’

아! 내가 팀장이 되었다. 나도 이제 한 팀의 팀장이
된 것이다.

책임감있게, 팀원들에게 성실함의 표본을 보여줘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업에 임하였고, 박수현
선생님도 이런 나를 인정하였는지 나에게 인정의 눈빛을
마구 마구 주는 것 같았다.

팀장이 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가족의 이사가 결정되었고, EM실천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

이사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처음으로 나에게 팀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곳, 나에게 웃음과 진심어린 애정을
주었던 곳, 이제 이곳을 떠나 지방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한다.

언제나 나를 위해 주었던 나의 동료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M실천 식구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문의 영광

EM실천 인쇄사업부 주임 신 영 권



어느 날부터인가 박미선 팀장님께서 친절한 미소를 머금고 내게 이것 저것 물어보신다. 정신장애했을 안고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주임'으로 승진한 뒤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만족하며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일처리는 어떤 식으로 잘 하고 있는지 다른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신다. 또 EM실천에 입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입사 후 일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물어보시기도 한다. 휴일엔 무얼 하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까지.. 사례관리 담당자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시는 것일까?

지나친 비약일지 몰라도 이쯤 되면 스토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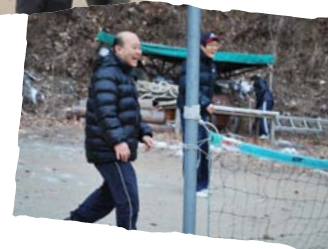
어느 날은 내 입사 파일과 두꺼운 사례관리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고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설마 팀장님께서 나의 뒷조사를?

그러고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장·단점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묻고 다니셨다고 한다.

관계망상이 심한 나로서는 의심이 증폭되었다. 팀장님마저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일을 못해서 퇴사 후보자에 오른 것은 아닌가, 머릿 속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환한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공적 조서'라는 것을 주시면서 마음껏 자기자랑을 하라고 하신다. 이젠 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우수 장애인근로자상에 나를 추천하려고 하니 자신의 공적을 문서화하라는 것이었다.



아! 그래서 그러셨던 것이었구나!

나는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며 그간의 의심과 오해를 풀고 감사함에 벅차오르는, 떨리는 손으로 '공적 조서'를 써 나갔다.

그러나 막상 공적 조서를 쓰려고 하니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었다. 하나 있다면 EM실천이 있어 내가, '신영권 주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 뿐. 원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고, 누구보다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년여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과녁을 맞히지는 못했고, 시간의 나이테가 성장하지도 못한 것 같다.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모실 만한 상을 받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본다. EM실천에 처음 입사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내 인생의 초석은 여기서 세웠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New Family



임현주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이라고 하기엔 많아도 너무 나이가 많은 임여사(임현주)입니다.

결혼 후 집에서 살림만 하며 보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히 고민하던 중에 EM실천 면접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높게 봐주셨던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두들 취업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인 때입니다. 취업 취약층인 저에게도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바꿔줘!

너무 나이가 많아 바꿔줘~~교환 안되구요

열심히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현주선생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도 소식지 발행 이전에 퇴사하셨습니다.



권장운

반갑습니다.

2012년에 EM실천 마지막 입사자인 직업재활팀의 막내 권장운입니다.

EM실천에 입사해서 놀라고 신기한 것은 직업재활시설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 것이고, 학창시절을 연상케 하는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통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의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들의 열정을 흡수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EM실천이 장애인직업재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고 앞장 서고 있는 기관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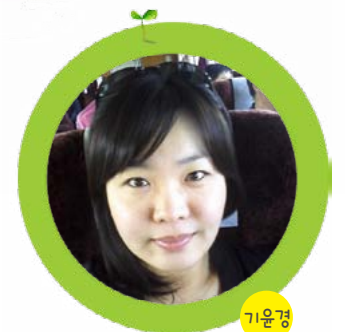
9월에 입사한 직업재활팀 한글 편집담당 기운경입니다.

친절히 대해주시는 직원분들 덕에 입사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색함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분들을 보면서 힘찬 에너지를 받습니다.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운경

저 김재우는 부모님 슬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초, 중, 고 때는 반장, 부장도 했었고 성적도 상위인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운동, 음악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내 축구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 후 큰 사고를 당한 후부터 병이 나서 치료도 받고 입원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사회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부모님과 집에서 지내며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마포에 있는 '태화 샘솟는 집' 복지관을 다녔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나 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 주셔서 몇 군데 다니며 용돈을 받았습니.

2008년 하계동 '동천모자' 사회적기업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동천모자'가 첫 직장이었습니다. 처음 입사 때는 열심히 배웠는데 주위에서 자주 자극을 주며 꾸짖고 큰소리로 꾸중을 들을 때는 가슴이 막 뚫고 안정불절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자꾸 환경이 심해지면서 소심해지고 작업이 잘 안되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의 문제겠죠.

이런 직장내 문제로 새로운 준비가 필요했고 재충전을 위해 이곳 EM실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훈련생 김재우

저는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를 다니다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EM실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고 소심하고 좋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평범한 것을 좋아하고 시간 아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실패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순대볶음과 같이 매운음식을 좋아합니다. 피자도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훈련생 조용준



추억은 바람을바람을

| 직업재활팀 선임사회복지사 양 현 모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가 비가 오는지 확인을 하곤.. 한숨부터 나왔다. 비가 오는데 어쩌지 오늘이 날이 아니었나?... 걱정 가득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EM실천으로 달려갔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차에 몸을 싣고 강화도를 출발하였다. 달리기 시작한지 10분정도 지나자 맑은 하늘이 나오고 따뜻한 햇볕이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강화도 어느 고구마 밭이었다.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호미와 검정봉지를 들고 열심히 캐기 시작했다. 언제 나오나 파도파도 나오지 않네? 하는순간 고구마덩어리가 줄줄이 이어져 나왔다. 모두들 신이나 콧노래를 부르며 봉지에 주워담기 시작했다. 호미를 든지 5분도 안되 봉지는 팍 찢고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는 우리는 고구마줄기까지 아무지게 다듬어 준비해온 가방에 담았다. 모두들 두 손 가득 신나게 차에 올라타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삼십여분 가자 드넓은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다. 콧등이 빨개질 정도로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시원하고 경쾌하기까지 했다.

도착한 우리는 동막해수욕장에서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준비한 도시락을 열어 배를 채웠다. 옛날 친구들과 소풍갔던 시절이 떠올라 추억에 잠기곤 했다. 일찍 식사를 마친 식구들은 자리를 털고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조개껍질을 주우며 낭만을 즐기고 있었다. 식사정리를 마치고 동글게 모여 다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엔 황토염색체험이었다. 손을 걷고 준비된 손수건에 물이 통하지 않게 원하는 모양을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황토물에 넣자 붉은 염색이 되었다.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 꼭꼭 고무줄을 끊자 이쁘게 염색된 손수건이 만들어졌다.

너도나도 인증샷을 날리며 다음 장소로 GO!GO!GO!

마지막장소인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덕포진교육박물관에 도착했다. 예전 국민학교 시절 사용되었던 물건들과 교과서 등이 소장되어있는 박물관이었다. 관람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실에 앉아 웃음치료를 시작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은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렇게 자그마한 박물관을 만들고 더불어 웃음치료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꿈과 희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셔 우리들에게도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꿈꾸게 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사랑한다 아들이

| 현수막사업부 한선택 어머니님

초등학교 시절부터 상우원, 공부하라는 소리 한마디 안해도 스스로 알아서 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좋은 성적으로 남들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를 진학하였다. 선택이 엄마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하여 나 스스로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나를 항상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해주었던 아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당당히 합격하였고 기쁨으로 컴퓨터를 사주었다. 하지만 이후 선택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두문불출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지냈다.

20여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우연히 지나가던 버스랑고에서 장애인일자리지원통합센터의 광고를 보고 별 기대없이 전화상담을 했다. 센터 소개로 TEM실전에 오게 되었고 상담을 받았다. 면접을 통해 일할 기회가 선택이에게도 생겼다는 것에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과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결론은 기뻐했다. 내 아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에.

며칠 전 가족나들이라며 아들과 함께 TEM실전 야외활동으로 강화도에 다녀왔다.

사랑하는 아들, 선택이와 함께 고구마도 캐고 손수건에 황도염색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래까지도 불러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나는 행복하다.

TEM실전이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내 아들이 되었으면 한다. 말 없는 아들의 모습에 조금은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사랑한다. 아들이



사랑으로

정신건강
복지재단

20년

사진으로 보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0주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는 아름다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0주년 기념식이 관악구청 대강당 8층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엠실천의 운영법인으로써 법인의 역사를 절반을 함께한 이엠실천 모든 가족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노외받고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쉼터이자 친구가 되는 한울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20주년을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금천지부
EM실천 직원일동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최정환선생님과 이엠실천 김영환원장님



이엠실천-양현모, 고미나, 박정환선생님



조은상상 정보영원장님과 양희정선생님



조은상상 양희정선생님...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복잡세"



한울사회서비스 유소정선생님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표



이엠실천 김영환, 조은상상 양희정



기평장부 정미아국장님, 한울센터 남효진



조은상상양희정, 이엠실천 박미연



한울사회서비스 미녀들...



공연보고 좋아하는 한울사회서비스 직원들



표창장수여자 김락우, 김종운선생님



인천장북 한명섭관장님(가운데)



축하공연 운더스팟



강석중인 한울법인 노명근이사, 김용득이사



표창장수상자 허준선생님



공로패수상자



한울센터 최정환, 박정환선생님



대전세련관 민은희관장님



미녀참중사...



서울시의원 이상호의원관 이성규교수님



이엠실천의 이만자, 일만자 ㅋㅋ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한경희팀장, 유소정팀장



한울센터 이만재, 송숙자선생님



이엠실천 임성수, 노무법인한길 박태준



기평장부, 이엠실천 고미나선생님 "열심히 컷다기"



한울센터 홍경아, 중랑한울선생님



대전세련관 민은희관장님(우측)



기평장부에 김영관장님(가운데)



2012년 11월,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한 사업평가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장소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인천 영종도를 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평가회의는 기존직원 뿐만 아니라 신규직원들도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도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한 듯하다.

점심식사 이후, 직원들은 각자의 짐과 서류들을 챙겨 차에 올랐다. 한 시간 남짓 달렸을까? 우리는 미리 예약을 해 두었던 '을왕리별펜션'에 도착을 했고,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바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디자인팀, 직업재활팀, 총무기획팀 순으로 진행된 회의는 약 3시간가량 소요 되었고,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작년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금년도는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EM실천의 대내외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평가회의 이외에도 팀장, 팀원회의가 별도로 진행되어 심도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던 길고 긴 회의가 끝나고.. 고생했다, 내년에도 더욱 잘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내가 너의 마니또다!!

일주일동안 각자의 마니또에게 선행을 베풀고, 드디어 오늘 이 시간 공개를 하기로 했다. 눈치가 빠른 몇몇 직원들은 이미 누가 누구의 마니또인지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여전히 궁금증을 갖은 채 의심의 눈초리를 마구 쏘아댔다. 작은 정성을 전달하며, 내가 당신의 마니또입니다. 폭풍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아마 자신의 마니또를 예상치 못한 직원들은 두 배의 감동을 받았으리라.. 내년에는 더 발전하는 EM실천을 기대하며 올 해의 사업평가 및 직원 워크샵을 웃음과 기쁨으로 보냈다.

2012 사업평가 워크샵

언제: 2012. 11. 9~10 어디에: 인천 중구 을왕동 별펜션 누가: EM실천 직원들



DM발송사업부
Fighting!!



그녀들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DM발송 담당
박수현, 임현주입니다.
고객님들의 정확하고 빠른 우편발송을 위해
오늘도 저희는 달립니다.
저희 일과를 한번 보실래요?? ^^



그녀들의 수다



입사하신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편발송업무 어렵진 않으신가요?

우편발송 업무가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고객 대응도 능숙해야 하고 발송 시기가 정해져 있는 작업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라구요. 여러 업체의 주문이 한꺼번에 밀렸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정신 빠~~짝 차리고 있습니다.



근로사원(정신장애인)을 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처음에 이 분들을 대할 때는 정신장애를 알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회원들을 대하는 방법에도 조금의 요령이 생기더군요. 때론 우리들과 같은 비장애 인들도 겉으로만 멀쩡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EM실천에서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빨리 치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회원들과 친화력이 좋으시던데 비결이 뭐예요?

비밀인데...췌! 사실 비결 없는데.. 가끔 지나가다가 힘내시라고 파이팅을 외치거나 농담 한마디씩?^^



나이 많은 아줌마와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데 동료로서 불편함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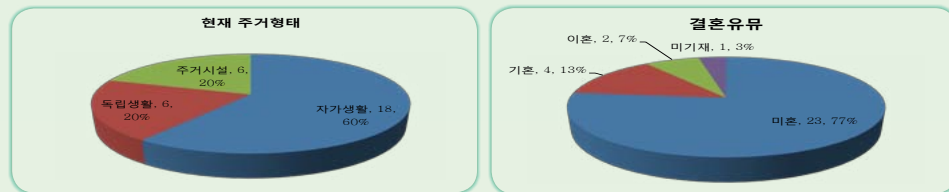
처음에는 나이차가 있어서 걱정했지만, 임현주선생님과 처음 인사 나눌 때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걱정이 썩! 사라졌어요. 일 할 때 나이 상관없이 먼저 배우려고 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부끄럽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수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막간 홍보!
앞으로도 저희 DM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고객님들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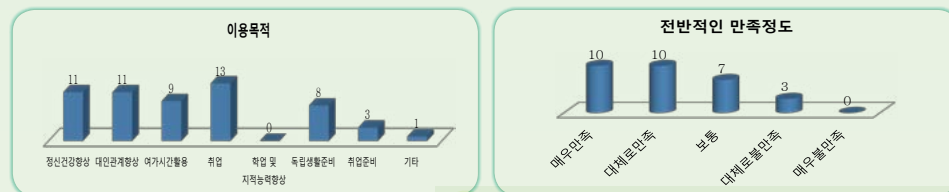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조사 시기 : 2012. 11. 26~27(2일)
- 응답자 : 30명 (남자 : 18명, 여자 : 12명)

일반적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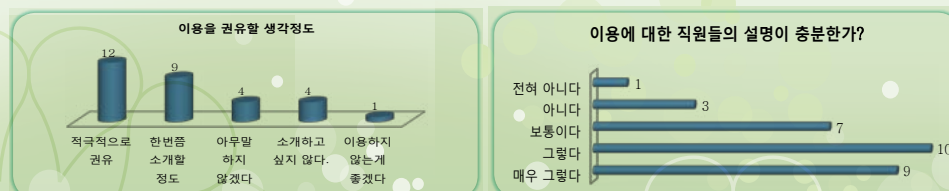


전체적인 평가



EM실천 이용목적으로 이곳이 취업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장애인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신건강, 대인관계 향상 여가시간 활용 독립 생활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자의 65% 이상이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도 1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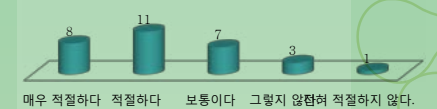
EM실천에 대해 타인이나 주변의 장애인에게 이용을 권유하겠다는 질문에는 아무말하지 않겠다, 소개하고 싶지 않다, 이용권유 안하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31%로 응답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다.

기간 이용시 직원들의 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평가되나 13%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기관이용에 대한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이용규정 및 안내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겠다.

등록과 이용절차는 간편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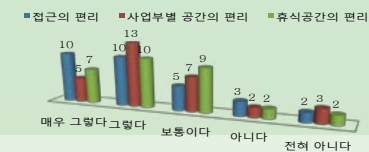
이용시 1개월의 적응기간은 적절한가?



EM실천의 이용절차는 문의-접수-상담-1개월의 적응훈련-이용 여부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등록절차는 전반적으로 간편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7%이다. 다른 기관의 이용절차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여 이용절차에 대한 좀더 개발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로 평가된다.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적응기간 1개월에 대한 의견이다. 매우적절 ~ 보통이라는 의견이 86%로 현재의 적응훈련기간 1개월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편이다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어 부정적 의견의 응답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다른 보호적업장의 경우 이용여부결정을 위한 적응기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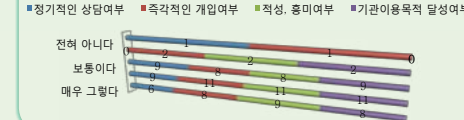
상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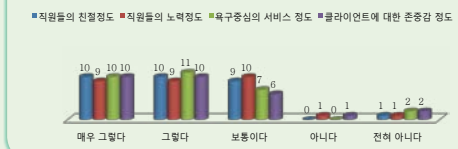
EM실천은 가산디지털단지 6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이상의 접근성 정기상담이 부족하다는 사례관리자들의 자기평가결과에 비춰볼 때 위치에 있다. 그러나 출퇴근시 통근버스가 운행되어 출퇴근시 접근 근로장애인들의 상담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우수하다. 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나 접근성에 대한 부정적의견을 유추해 그러나 개인차가 심하다고 평가되며 월1~2회정도의 정기상담이 불 때 통근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의 접근성은 매우 부정적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다음 만족도조사에서는 적절한 여겨진다. 또한 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사업부의 공간에 하다고 생각되는 상담횟수는 몇회인가라는 보완질문을 가져가 대한 편리성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 볼 예정이다. 으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7%로 응답되어 공간의 편리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1. 이용목적달성과 그에 따른 적성, 흥미정도

2. 정기상담과 비정기상담정도



직원의 자세에 대한 만족도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달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2명이 응답, 이 경우 개 인상담을 통해 이용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할 듯하다. 또한 정기상담과 위키시 즉각 개입의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더불어 적성, 흥미에 대한 부문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다는 의견이다. EM실천의 직무를 살펴보면 인쇄, 현수막, 우편발송, 현수막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중 배송 및 고객과의 만남, 제조 등의 다양한 직무들도 구성되어 있다.

기관이용종 직원들의 친절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력정도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나 일부 응답자는 친절하지 못하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해주었다. 욕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서비스제공들이 전반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욕구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기존의 서비스가 장애의 상황과 훈련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되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2012년 EM실천의 월별 행사포토 앨범

1월



- 예산감사 (1. 30)
- 이사회(2011년 사업평가, 2012년 사업계획)

2월



2012년 새로운 프로그램 START

3월



EM실천 10주년 기념식 (3.16)

4월



2012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통해,
경향미회원님이 취업 (4.20)

5월



체육대회 (5.11)

6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직업재활 네트워크 사업단
워크샵 (6.15~16)

7월



여름캠프 '여수해양박람회' (7. 5~7)

8월



여름휴가와 일자리창출사업
5명이 새가족으로 입사

9월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9.15)



추석명절 (9.26)

10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 나들이 (10. 17)

11월



어울림체육대회 (11. 7)
근로장애인우수상 '신영권주임' 수여

12월



'희망실천 그리고 새로운 시작'
(12.7)

Thanks for you !!

한해의 마지막에 선 12월 고객님들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EM실천에서의 인쇄, 현수막, 우편발송등을 한해동안 이용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EM실천은 2012년에도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서 그 역량을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객님의 선택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고맙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며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온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나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 해주시고 지적 해 주시면 큰 충고로 알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협력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해주신다면 고객님과 함께 "멋진 미래의 꿈"을 펼치는데 모든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해에도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드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내년에도 더 나은 EM실천의 희망을 품고 고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M실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합니다”



4분기 우리들의 활동보고

- 10 / 10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기지도점검
18-19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종사자 워크샵, 김영환, 양현모, 박수현 (숙초 서울시공무원연수원)
25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박수현, 고미나(강서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26 실습종결평가, 이성환, 박창열, 하수근, 문승복 실습생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30 장애인직업재활의날, 인쇄물협의회 참여(일산 세텍)
30~3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국제대회, 김영환위원장님(인천 송도)



- 11 / 7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어울림체육대회 참여
7 2012년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우수근로장애인 수상, 인쇄사업부 신영권 주임
9~10 2012년 EM실천 사업평가 워크샵
15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0주년 기념식, 관악구청
16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평가 공청회, 김영환, 박미선



- 12 / 6 평가지표설명회
7 송년회 ('희망실천 그리고 새로운 시작')
12 아모레퍼시픽 자원봉사활동
13 2012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수현(전남 나주)
20 5차 운영위원회



기관방문

2012. 11. 5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2명, 기관방문
2012. 11. 6 향림클럽하우스 직원
및 회원 7명, 기관방문

꿈과 희망을 전하는 EM실천 "DM사업"

DB, 출력관리

- 1) 주소록 DB관리 및 정리
- 2) 주소인쇄, 라벨출력 등

정보 보안 관리

- 1) 주소록 폐기
- 2) 개인정보 취급 보완서 작성
- 3) 담당자 외 정보 접근 불가 시스템

각종 인쇄물 제작

- 1) 봉투(전산, 비닐, 일반, 창봉투 등)
- 2) 공문, 안내문
- 3) 그외 (브로셔, 리플렛, 소식지, 초청장 등)

반송우편물 관리

- 1) 고객요청시 반송우편물 관리
- 2) 반송우편물 관련 주소록 관리

꿈과 희망을
전하는 DM



데이터베이스
관리



디자인



각종인쇄물
제작



주소출력



우편·택배
작업



우체국접수

EM실천 우편발송은?

1. 디자인-인쇄-우편·택배발송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구축
2. 주소출력기, 봉투봉합기, 접지기, 라벨인쇄기, 송장출력기 등 장비 보유
3. 우체국, 로젠, 한진 등과의 계약을 통한 저렴한 우편·택배요금 제공
4. 각종 인증·지정서 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제2009-030호)
 -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2011-008호)
5. 25명 이상의 근로장애인 상시 근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면?

EM실천

Tel. 02-875-9744 / Fax,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이메일 em21c@hanmail.net

2012년 EM실천과 함께

나눔·소통·도약할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나눔의 EM실천

나눔은 내것은 주고 받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기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소통과 도약의 통로인 EM실천에 오세요.

소통 1. EM실천에 일거리 제공(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

소통 2. 저금통 나눔

소통 3. EM실천 직접후원

(후원계좌 : 예금주 이엠실천)

• 하나은행 577-910004-99104

• 우리은행 1005-202-023861

• 농협 301-0104-7345-41

소통 4. 봉사나눔(VMS인증서 발행)

- 여가프로그램지원
- 교육프로그램지원
- 직무지도 지원



Thank you

〈자원봉사자〉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박체윤 외6명), 김웅대, 안지민

국민은행 가산테크노타운 지점 (변종철 외 10명)

〈후원자〉

-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 생필품 후원